

## 일본 수출규제/한일 관계 동향(2020.7.11.~2020.7.26)

### 1. WTO 제소 관련

- 일본 언론은 7월 29일 한국 정부의 패널설치 요청이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sup>1)</sup>
  - NHK는 한국 정부가 재차 일본 수출규제 관련 패널설치를 요구했다고 보도 (2020. 7. 18)
    - 6월 WTO 가입국 회의에서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되었지만, 일본 측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수출 건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패널 설치가 보류
  - 한편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재차 요구함에 따라, 7월 29일 개최되는 WTO 가입국 회의에서 동 안건이 의제로 상정될 예정
  - NHK는 ① WTO 규정상 두 번째 요청시에는 제소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 한 승인된다는 점, ② 과거에 승인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7월 29일에는 패널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

### 2. 비자발급 제한 관련

- 일본의 한 언론은 일본 정부가 자산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sup>2)</sup>
  - 일본의 한 언론매체(静岡新聞)는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매각을 실시하도록 한국 법원이 명령할 경우를 대비하여, 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요건 강화, ②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등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비자의 경우,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비자 면제를 정지하는 방안, 각종 비자의 취득요건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1) 「日本の輸出管理めぐる韓国の提訴 WTOで審理入りの見通し」, 「NHK NEWS WEB」, (2020. 7. 18).

2) 「対韓国 ビザ厳格化検討 徴用工訴訟 政府、資産売却命令に備え」, 「静岡新聞」, (2020. 7. 26)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동 조치의 영향력은 작을 것으로 전망

○ 자산매각 시기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공시송달 효력이 8월 4일 0시부터 발효되며, 이후에는 사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이에 따라 시즈오카 신문은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 조치의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도